"잿더미 속에서도 설은 쇠야제"

화재로 삶터 잃은 진도읍 재래시장 상인들

조립식 임시 점포서 설 대목장사 준비 한창

26일 폐허가 된 진도군 진도읍 상설시장은 매캐한 남새가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설 명절 재래시장의 북적거림 대신, 시커멓게 그을린 2층짜리 조립식 건물 외벽은 금세 무너져 내릴 듯 바람이 불 때마다 '끼익, 끼익' 소리를 냈다. 건물 안에는 시금치·그릇·꼬막·굴·젓갈 등 상인들이 '화마' 속에서 미처 빼내오지 못해 타버린 물건들로 가득했다.

지난 11일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는 25개 점포를 잿더미로 만들며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 식당 종업원 윤모(24)씨가 숨지는 등 소방서추산 2억5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광주일보 1월 13일자 6면〉

화재 피해가 가시지 않은 자리에 상인들은 다시 난전을 펼쳤다. 진도군이 지난 24일 상설시장 앞 일부 도로와 주차장에 상인들을 위해 간이 점포를 만들어 주면서다. 피해 상인 21명을 위해 가로 4m·세로 3.6m의 조립식 건물이 들어섰다.

설 대목을 맞아 잔뜩 물건을 구입해 놓았다가 하룻밤 사이에 몽땅 잿더미로 변한 모습에 가슴을 쳤던 상인들은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좌판에 물건을 벌려 놓으며 손님 맞을 준비로 부산했다.

수산물 식당 주인은 임시 점포에 수조를 설치하고 싱싱한 횟감을 채워 넣었다. 전기·수도를 점검하고 새로 마련한 점포 앞에 술을 부으며 액운을 떨치려는 상인 모습도 보였다.

설 대목을 맞아 '한푼이라도 벌기 위한' 상인들의 절박한 심정이 가슴에 와 닿았다.

폐허 속에서 좌판을 벌리는 상인들에겐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시장 상인 장모(56)씨는 "일주일 전부터 택배 판매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명절 대목 장사는 끝났지만 진도군의 도움으로 빨리 다시 장사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판매점 김모(여·55)씨도 "새로 좌판이 생겼으니 다시 잘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상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도 상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도지구협의회가 다음달 18일까지 여는 모금운동(목표액 5억)을 통해 554만6000원이 모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설 대목을 앞둔 26일 오후 진도군 진도읍 상설시장 상인들이 화재후 임시로 지은 점포에서 생선을 손질하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위로 불에 탄 시장 건물 잔해가 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올해도 다녀간 '이름없는 천사'

광산 하남동 주민센터 사과상자 50개 놓고가

수년째 명절 무렵 주민센터에 이웃돕기 물품을 놓고 사라지는 이름 없는 천사가 올해도 나타났다.

26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시께 주민센터 창고 앞에 5kg짜리 사과상자 50개가 쌓여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출근한 직원이 발견했다.

맨 위 상자에는 "어려운 가정을 선별하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적힌 A4 용지가 놓여 있었다. 이 주민센터에는 2011년 1월 20kg짜리 쌀 50포대를 시작으로 2012년 9월 포도 50상자, 지난해 9월 포도 50상자가 같은 방법으로 전달됐다.

주민센터 측은 같은 기부자의 선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창화 하남동장은 "해마다 이어지는 나눔 덕분에 주민들도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건네는 '나눔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렬기자 srchoi@

5·18부상자 회장에 김후식씨

제5대 (사)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으로 김후식(73)씨가 선출됐다.

26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치평동 5·18 기념재단에서 열린 '2014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제 5대 회장으로 김씨가 최종 선임됐다.

김씨는 제2대 5·18 부상자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5·18 부상자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 및 5대 이사 13명·감사 3명 등 16명의 임원도 새로 선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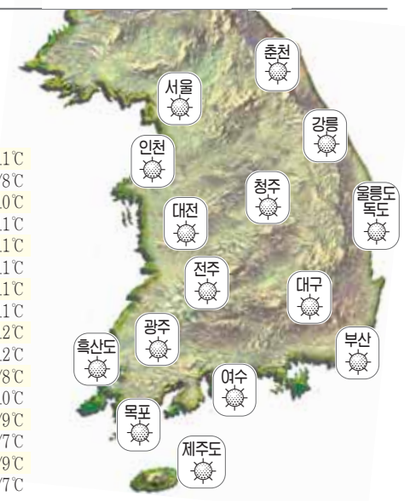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5분 해짐 17시 55분 | 달뜸 03시 36분 달짐 14시 07분

아침 기온 뚝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5/11℃
목 포	맑음	-4/8℃
여 수	맑음	-2/10℃
나 주	맑음	-9/11℃
완 도	맑음	-4/11℃
구 례	맑음	-8/11℃
강 진	맑음	-8/11℃
해 남	맑음	-9/11℃
장 흥	맑음	-9/12℃
순 천	맑음	-4/12℃
영 광	맑음	-8/8℃
진 도	맑음	-6/10℃
전 주	맑음	-7/9℃
군 산	맑음	-5/7℃
남 원	맑음	-10/9℃
흑산도	맑음	0/7℃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0.5~1.5m

감기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매우높음	낮음	매우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먼바다	남~남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밀물	썰물
목포	10:45 22:52	03:23 16:36
여수	06:18 18:14	12:26 00:0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화)	29(수)	30(목)	31(금)	2/1(토)	2(일)
날 씨						
최저/최고	0/9	-2/10	5/8	0/8	5/11	5/8

고속도로·주유소·날씨 상황 앱·문자로 알려줍니다

안행부, 유익한 '설정보' 제공

고속도로 상황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20초 내에 사고나 정체 구간이 있는지 답신을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26일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정보 문자서비스 등 '설 연휴 유용한 공공정보 10선'을 추천했다.양재~천안 간 고속도로 상황을 알고 싶을 때 ☎1588-2504로 '양재 천안'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20초 내에 이 구간에 사고나 정체구간이 있는지 답신을 받아볼 수 있다. 스마트폰은 물론 2G 휴대전화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상황을 알아보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현재 위치 주변 주유소나 충전소까지 거리와 기름·가스 가격을 알고 싶으면 석유공사의 오피넷을 활용하면 되며, 귀성구간 날씨는 기상청 날씨 앱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고향 도착 후 제수를 준비할 때 마트와 전통시장 가격을 비교하려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정보를 통해 지역별·판매점별·기간별 가격을 알 수 있다. /연합뉴스

주변 유치원 정보 스마트폰서 받아보세요

교육부는 스마트폰을 통해 주변 유치원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유치원알리미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자신의 있는 지역과 가까운 유치원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최대 3개 유치원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고,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SNS)와 연계돼 다른 학부모와 유치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웹(Web) 버전으로도 유치원간 공시항목을 비교할 수 있게 했고, 유치원의 지도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겠지요"

이산가족 상봉 기다리는 광주·전남 실향민들

"이번에는 만날 수 있겠지요?"

북한이 최근 설 명절 뒤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들은 광주·전남 지역 이산 가족들은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순임(75·서구 내방동)씨는 26일, 추석을 앞두고 6·25 때 헤어진 큰 오빠 권수(81) 씨가 북한에서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기뻐했다. 김씨는 북한이 통보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에 포함된 만큼 상봉이 성사되면 우선적으로 북측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김씨는 "남·북한이 서로 잘 협의해서 이번에야 말로 꼭 만났으면 좋겠다"며 "60년 넘는 시간 동안 따로 떨어져 있어도, 살아있으니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며 변함없는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씨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상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은 지 5일 만에 상봉 연기 소식을 들었다. 60년이 넘도록 기다렸던 만큼 상실감도 컸던 탓에 또다시 행사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걱정도 적지 않다.

다른 이산가족들 마음도 비슷하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지 올해로 19년째지만 이번 대상자 명단에서 빠져 있는 명상엽(84·평안남도 대동면 출신)씨는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언제든 갈 수 있다"며 다음에는 상봉 대상자에 속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명씨는 "광주에 사는 이산가족 1만5000여명 중 1세대 생존자는 겨우 50~60명뿐인데, 죽은 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 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정렬기자 halo@